책만들기로 '땅'을 지킨다

질높은 환경관련서 출간하는 뜨님출판사

출판사 뜨님이 섬기는 것은 '땅님'이기도 하고 '따님'이기도 하다. 권력에 의해, 혹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물질만능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소외당하고 피해받는 대표적인 것들인 '땅'과 '딸'의 주제는 뜨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온 분야이다.

"다른 분야는 이미 많은 분들이 출판을 하고 있어서 환경이나 여성문제 중심으로 출판을 해야겠다 생각했지요. 환경문제나 여성문제 모두 힘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데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사장 송대원(43)씨의 말이다.

뜨님은 소외당하고 피해받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올해로 6년째 접어드는 뜨님이 펴낸 20여종 가운데 17종이 환경관련서다. 환경문제를 단순한 공기오염이나 수돗물 속의 중금속 문제만이 아닌 난민·군대·에이즈 문제 등 인류 생존 자체의 문제와 직결시키는 새로운 인식을 제공해준다는 데 뜨님 책의 특성이 있다.

환경전문출판사 뜨님의 박은희 편집부장(왼쪽)과 송대원 사장.

'환경문제'에 일관된 관심

올해로 6년째 접어드는 뜨님이 지금까지 낸 책은 모두 20여종. 1년에 평균잡아 3종이 약간 넘는 셈이다. 이들 중 17종이 환경서다. 지금이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요란할 정도로 높아졌고 관련 책도 무수하게 쏟아지고 있지만 90년대 초만 해도 본격적인 환경관련서를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누구나 뜨님의 책을 반갑게 읽었다.

월드 워치 리서치 연구소가 펴낸《지구환경보고서》는 뜨님의 대표적인 책. 91년판부터 95년판까지 나와 있는데 환경문제를 단순한 공기 오염이나 수돗물 속의 중금 속의 문제 등이 아닌 난민문제, 군대문제, 에이즈 문제 등 인류 생존 자체의 문제와 직결시키는 새로운 인식을 제공해준 책이다.

《생태계 위기와 한국의 환경문제》나《환경학교》등 국내 전문가들의 글을 모은 입문서 형태의 책이 있는가 하면, 원자력 발전 문제의 근원을 파헤친 고전《원자력 제국》과 환경파괴의 근본적인 요인을 소비지향주의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소비사회의 극복》등도 환경관련 필독서로 꼽힌다.

송사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제법 큰 건설회사를 다니다가 아는 분의 권유로 잡지 일에 뛰어 들었다. 그 잡지가 3년 만에 깨끗이 거덜난 후 어차피 '책'판에 젖어버린 송사장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90년 뜨님을 만들고 출판을 시작했다. 편집부원 없는 편집부장 박은희(33)씨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송사장과 함께 하 는 유일한 뜨님의 직원(?)이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천천히 정성껏 제가 세상에 내놓고 싶은 책만 만듭니다."

완성도 높은 책에 주력

책 내는 일 자체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좋은 책을 선정하고 완성도 높게 출판하는 데 주력하는 만큼 뜨님의 도서목록은 질이 고르고 편집도 깔끔하다.

정성껏 만든 책이 엉망이 된 채 되돌아오는 것이 너무 속상해 주문 판매와 우편 판매만 하고 있는데 고정 독자가 1500명 정도로 늘었고, 책이 나오면 무조건 부쳐 달라는 열렬한 팬도 50명 가량 된다고.

"국내 저자들이 환경에 관련된 원고를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엄선, 출판합니다만 뜨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진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우리 책의 독자들이 주로 학계나 전문가들일 것으로 여겼는데 목사 신부 농부 발전소 직원 등 의외의 독자들이 책주문을 할 때는 더 큰 보람을 느끼지요."

송사장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킬 만한 좋은 환경책을 꾸준히 내는 한편, 의미 있는 인문과학분야 책도 출판할 생각이다. 도날드 휴즈의《환경과 문명》, 다카키 진자부로의《플로토늄의 미래》, 노암 촘스키의《YEAR 501》이 곧 나올 책이다.

——박남정 기자

종교에서의 상징과 신화

L.K. 뒤프레 지음/권수경 옮김/208면/7,000원

모더니티의 문제를 신, 자연, 인간 사이의 와해에 근거한 초월성의 상실이라고 진단하는 지은이가 종교 언어, 상징, 신화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실재하는 초월성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념에 관하여: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2

D. 흄 지음/이준호 옮김/224면/9,000원/양장

인식 작용 이외의 도덕적 감정과 예술적 감정 및 그 밖의 모든 심리적 사실을 실험적 방법을 통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흄의 원전. 도덕적 가치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 또한 사회적이며 상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법철학

N. 브리스코른 지음/김일수 옮김/288면/9,500원

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입문 사례를 통해 법과 법질서의 존재 이유, 법의 형식, 경제·정치·윤리와 법과의 관계 등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반 철학, 인간학, 신학의 폭넓은 지식을 원용하여 법의 근본 문제에 접근한다.

가치와 사실

길병휘 지음/248면/7,500원/철학박사학위논문 8

서구의 분석 윤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토대인 가치와 사실의 이분법을 해소할 수 있는 단서를 인간 의식의 지향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20세기에 제기된 영미 윤리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